

지역 매아리

성덕면 복지기동대

나무멜감 만들기 봉사활동 나서

김제시 성덕면 희망드림 복지기동대(대장 최부호)는 18일, 관내 독거노인을 찾아가 나무멜감 만들기 봉사활동을 펼쳤다. 이날 복지기동대원 8명은 성덕면 복지회관 2층에서 향후 봉사활동 계획 등 간단한 임의회의를 마친 후 묘리마을 독거노인 어르신댁으로 이동했다.

대상자 어르신은 고령의 독거노인임에도 사정상 보일러가 없는 임대주택에 살고 있으며, 나무 멜감을 구해 난방, 취사를 해결하고 있었으나, 건강상 심장질환 및 관절염 등을 앓고 있어 이마저도 쉽지 않아 복지 기동대에 도움을 요청하였다. 성덕면 희망드림 복지기동대는 지역 보호체계를 구축으로 기초생활수급자 및 소외계층의 어려운 세대를 직접 찾아가 주거환경의 불편 요소를 살펴 집수선, 전기수리 등 맞춤형 복지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어 지역에 커다란 활력이 되고 있다. /김제=곽노태 기자

완주군, 2018년 청년기움식당

김성훈씨, 우수키친 창업

외식창업에 희망하는 청년들에게 실질적인 경험을 쌓을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해주고 있는 완주군 청년기움식당 출신 청년이 창업 성공을 거뒀다.

18일 완주군에 따르면 지난해 1차 참가 팀인 '일면식'에 참가한 김성훈씨가 '외식기움협동조합-우스키친'을 창업했다.

외식기움협동조합은 우석대학교 외식산업조리학과 학부생과 졸업생 및 대학원생들의 네트워크를 통해 설립하게 된 곳이다. 이들은 '2018년 외식창업인큐베이팅-청년기움식당' 참여를 계기로 다양한 대외활동을 진행하며 협동조합을 접하게 됐고 이를 통해 우석대학교 내 '우스키친'이라는 상호명으로 창업해 현재 성황리에 영업 중이다.

특히, 수익을 활용해 우석대학교 외식산업조리학과 학생들에게 점심시간을 활용한 단기간 현장체험 및 아르바이트를 통한 일자리 제공도 하고 있어 학생들이 현장경험을 쌓을 수 있도록 돕고 있다. 또한, 역량강화를 위해 방학시즌에 재학생들과 졸업생들이 함께 메뉴를 개발하고, 개강 후에는 개발된 메뉴를 판매하고 있다.

또한 단체도시락 및 간식 주문 시 메뉴는 구매자의 요구와 단가에 따라 재학생들을 메뉴개발에 참여시켜 상시적으로 제조, 판매하고 있다. 우스키친은 향후 외식, 식품 관련 창업 희망자 전문교육 및 기술 전수, 메뉴개발 등 관련 제반 사업을 통해 청년 창업 및 중, 장년 재취업을 위한 전문 교육 과정을 운영한다는 계획이다. /완주=이종복 기자

'완주 챌린지 100°C' 발진

군, 정책 연구모임 '완주숙(宿)' 운영... 임용 5년 이내 신규 공직자

창의행정을 주창해온 완주군이 15만 자족도시 실현을 위한 '핵심인재 육성 프로젝트'를 발진하고 군정에 새 바람을 불어넣는다. 신선하고 북돋는 젊음의 아이디어를 행정에 접목하는 실질적인 창의행정을 활성화하는 취지여서 비상한 관심을 끈다.

17일 완주군은 창의행정 활성화의 일환으로 임용 5년 이내 신규 공직자들로 구성된 정책 연구모임 '완주 챌린지 100°C'와, 1박2일 동안 현안을 공유하고 토론하는 '완주숙(宿)'을 운영한다고 밝혔다.

새로운 완주의 100년 미래에 도전하는 핵심인재 육성 프로젝트인 '완주 챌린지 100°C'는 '일 잘하고 공부하는 공직자'의 첫 글자인 '일공공'을 뜻한다. 완주의 100년 미래를 준비하고 도전한다는 의지와 함께 불이 팔릴 끓는 것과 같이 뜨겁고 치열하게 정책을 개발자는 중의적 의미가 포함돼 있다.

완주군은 임용 5년 이내 신규 직원 50명과 6~7급의 멘토 20명을 자율적으로 모집하고, 1개 팀당 10

명 이내의 7개 팀으로 구성해 올해 4월부터 매월 2회(수) '완주 챌린지 100°C'의 날을 운영하기로 했다.

이를 통해 군정에 접목할 아이디어와 정책 개발, 역량 강화 등 창의행정을 활성화한다는 방침이다. 또, 맞춤형 핵심인재 육성을 위해 전 부서 협업체제를 구축하고, 성과 평가와 피드백 강화, 참여자 확대 등을 통해 창의행정의 일대 바람을 불러일으킨다는 복안이다.

완주군은 오는 23일 '완주 챌린지 100°C' 발대식을 갖고 창의행정의 시동을 걸고, 전문가 정책자문과 역량강화 특강, 연구활동비 지원, 벤치마킹 예비 지원 등 실질적인 정책연구 활동을 뒷받침할 계획이다.

정책 연구모임과 신규 공직자를 대상으로 하는 '완주숙'도 올해 5월부터 본격적으로 운영된다. 기수당 35명 정도가 참여해 1박2일 과정으로 함축하며 주민중심 정책설계부터 군정 현안 공유 토론회, 소정의 장을 진행하게 된다. 정책 연

구모임과 신규 공직자 등 180여 명을 대상으로 올해 5회 운영하는 '완주숙'은 희망제작소와 관원부서 공조를 통해 밀도 있는 교육 커리큘럼을 짜게 된다.

완주군은 '완주 챌린지 100°C'와 '완주숙' 운영 등 2개 프로젝트를 통해 15만 자족도시 실현을 위한 차세대 핵심인재를 육성하고, 나아가 새로운 100년의 미래 먹거리를 준비해 나가기로 했다. 국내 기초단체에서 2030세대 인재를 키우는 창의 행정의 대대적인 발전은 극히 이례적이어서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박성일 완주군수는 "자치분권과 지방이양, 정부혁신 등 대외적 환경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응 가능한 맞춤형 핵심인재를 육성하고 발전적이며 소통하는 직장문화 확산을 위한 '아침 찬 프로젝트'라며 "앞으로 신규 공직자들이 좋은 정책을 개발하고 군정에 새 바람을 불어넣을 수 있도록 지원을 아끼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완주=이종복 기자

김제시, 2019 국가안전대진단 최종 보고회 개최

김제시는 18일 재난종합상황실에서 박준배 시장 주재로 2019년 국가안전대진단 최종 보고회를 개최했다.

2019년 국가안전대진단은 지난 2월 18일부터 4월 19일까지 61일간 시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해 추진되었으며 김제시는 올해 283개소를 대상으로 건축·전기·가스·토목·소방 분야에 대해 안전점검을 실시했다. 점검결과 금산사 미륵전을 포함한 3개소는 현장조치 완료했고, 장례식장

을 포함한 50개소 시설물에 대해서는 현재 조치 중에 있으며 급경사지를 포함한 나머지 48개의 시설물에 대해서는 차후 예산편성을 통해 조치해 나아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김제시의 2019년 국가안전대진단 주요 성과로 점검 대상 모든 시설물에 대하여 민·관합동 안전점검을 실시함으로써 전문성을 강화하였다는 것과 8회에 걸쳐서 간부공무원 현장행정을 실시한 것을 들 수 있다. /김제=곽노태 기자

이외에도 국가안전대진단 홍보캠페인을 3회에 걸쳐 실시하였으며 다양한 방식으로 국가안전대진단을 홍보함으로써 시민들의 관심도를 제고하고자 노력했다.

한편 박준배 시장은 "올해 국가안전대진단이 범국가적으로 짧은 시기에 강도 높게 진행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기한 내에 점검을 마무리한 것에 대해 노고를 치하"하며 "앞으로도 매 순간 경계심을 가지고 안전관리에 만전을 다해줄 것"을 당부하였다. /김제=곽노태 기자

김제시, 농산물 원산지 표시 지도 및 홍보 캠페인 실시

김제시(시장 박준배)는 18일 농산물 명예감시원과 농업기술센터소장, 먹거리유통과 직원 등 30여명이 전통시장을 찾아 시장상인들을 상대로 국내산 농산물과 소비자를 보호하기 위해 농산물 원산지 표시 지도 및 홍보 캠페인을 실시하였다.

시민들이 많이 이용하는 전통시장을 중심으로 시민들이 안심하고 농산물을 구매할 수 있도록 농축산물, 수입

농산물, 가공품 등을 중심으로 전통시장 상인들과 시민들을 대상으로 올바른 '원산지 표시' 방법을 설명하고 관련 홍보물을 배부했다.

주요 표시 대상품목으로는 농산물의 경우 국산 농산물, 수입농산물 및 가공품 638개 품목이며, 음식점의 경우 소·패지·닭·오리·양고기, 배추김치, 쌀, 콩 등 20개 품목이다.

김제시는 이들 품목에 대해 원산지

표시 이행 여부 및 표시 방법의 적정 여부 등을 지도 및 홍보하여 원산지 표시제도 정착을 유도해 나갈 예정이다. 김병철 김제시농업기술센터소장은 "농산물 수입개방으로 질 낮은 외국산 농산물이 무분별하게 들어와 우리 농산물로 둔갑해 식탁 위를 어지럽히는 현실에 맞서 소비자의 알 권리와 선택권을 보장하고 유통질서를 확립하기 위하여 규정에 맞게 원산지를 표기하여야 한다."고 말했다. /김제=곽노태 기자



18일 완주군은 전북녹색환경지원센터와 군청 소회의실에서 업무협약 체결식을 갖고, 협약서에 서명·교환했다.

'주민·기업·환경의 조화' 추진

완주군-전북녹색환경지원센터,환경문제 공동해결 MOU 체결

완주군이 전북녹색환경지원센터와 손잡고 중장기적인 환경정책 방향을 세운다.

18일 완주군은 전북녹색환경지원센터와 군청 소회의실에서 완주군 환경문제 공동해결을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

이날 협약식에는 박성일 완주군수와 과장동희 전북녹색환경지원센터 센터장이 참여해 업무협약 체결식을 갖고, 협약서에 서명·교환했다.

이번 협약을 통해 양 기관은 완주 지역의 녹색성장 조성과 환경민원을 해결하고, 두 기관의 유기적인 협력 체계를 구축하기로 합의했다.

특히 △환경조사연구 및 환경민원 해소를 위한 유기적 협조와 공동연

구조사 추진 △완주군 내 기업체 또는 주민들에게 환경문제해결에 관한 포럼, 세미나, 교육의 공동 개최 △상호 양 기관의 발전과 우호 증진을 위한 지식·정보 교환에 대해 협력하기로 했다.

박성일 완주군수는 "전북녹색환경지원센터와 협조해 완주군 환경부서와 과장동희 전북녹색환경지원센터 센터장이 참여해 업무협약 체결식을 갖고, 협약서에 서명·교환했다. 이번 협약을 통해 양 기관은 완주 지역의 녹색성장 조성과 환경민원을 해결하고, 두 기관의 유기적인 협력 체계를 구축하기로 합의했다. 특히 △환경조사연구 및 환경민원 해소를 위한 유기적 협조와 공동연

구조사 추진 △완주군 내 기업체 또는 주민들에게 환경문제해결에 관한 포럼, 세미나, 교육의 공동 개최 △상호 양 기관의 발전과 우호 증진을 위한 지식·정보 교환에 대해 협력하기로 했다. 박성일 완주군수는 "전북녹색환경지원센터와 협조해 완주군 환경부서와 과장동희 전북녹색환경지원센터 센터장이 참여해 업무협약 체결식을 갖고, 협약서에 서명·교환했다. 이번 협약을 통해 양 기관은 완주 지역의 녹색성장 조성과 환경민원을 해결하고, 두 기관의 유기적인 협력 체계를 구축하기로 합의했다. 특히 △환경조사연구 및 환경민원 해소를 위한 유기적 협조와 공동연

제54회 완주군민대상 수상자 선정

문화교육분야 등 7개 분야, 오는 5월 9일 완주군민의 날 수여

완주군의 명예를 드높이고 지역발전에 기여한 군민에게 주는 '제54회 완주군민대상' 영광의 수상자 7명이 운곡을 드러냈다.

18일 완주군은 최근 군청 중회의실에서 제54회 완주군민대상 선정 심사위원회를 열고 문화교육 분야 등 7개 분야에 대한 완주군민대상 수상자를 최종 선정했다고 밝혔다.

영광의 수상자는 문화교육 분야 국중하씨(완주예총 완주지회장)를 비롯해 나눔봉사 분야 성순자씨(삼례읍 새마을부녀연합회장), 경제 분야 김용현씨(정석케미칼 대표이사), 애향 분야 김용준씨(제경완주군민회장), 효열 분야 이영식씨(완주군 포도연구회장), 체육 분야 유경태씨(완주군 체육회 이사), 농림축수산 분야 김재욱씨(완주낙우회 회장) 등이다.

'완주군민대상'은 완주군의 명예를 드높이고 지역사회의 안정과 발전에 크게 기여한 군민에게 수여하는 큰 상으로, 1970년부터 매년 수상자를 선정·발표하고 있다. 심사위원장인 박성일 완주군수는 "완주군민대상은 각 분야에서 완주군의 명예를 드높인 자랑스러운 군민에게 드리는 영광스러운 상으로 올해는 무려 25명의 후보자가 추천돼 치열한 경쟁을 거쳤다"며 "앞으로도 보이지 않게 묵묵히 완주군을 빛내고 계신 훌륭한 군민들을 적극적으로 발굴해 시상하고, 수상자에 대해 최고의 시상으로 예우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완주군민대상 시상식은 오는 5월 9일 완주공설운동장에서 열리는 제54회 완주군민의 날 기념식에서 군민들의 축하 속에서 개최될 예정이다. /완주=이종복 기자

Advertisement for '착한신고' (Good Reporting) campaign. It features a woman covering her face in distress, with hands pointing towards her. The text promotes reporting child abuse to 112, highlighting that reporting is a heroic act. It lists signs of child abuse and provides contact information for reporting.